



Received: 2026/06/29
Revised: 2026/07/10
Accepted: 2026/07/28
Published: 2026/09/30

***Corresponding Author:**

Hye Woo Kim

271, Jaun-ro, Yo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Tel: ※ 개인정보 표시제한

E-mail: sbsn1133@gmail.com

소련·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이 한국 해군에 주는 시사점 연구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the Soviet Union's and China's Maritime Strategies and Naval Power Enhancement for the ROK Navy

김혜우^{1*}, 양수창²

¹해군 소령/해군대학 지휘참모과정 학생장교

²해군대학 해양전략전력학처 군수관리교관/충남대학교 국방경영공학 박사과정

Hye Woo Kim^{1*}, Su Chang Yang²

¹LCDR, ROK Navy/Student officer of Naval Commander & Step Course, ROK
Naval War College

²Instructor of Logistics Management, Dept. of Maritime Strategy Force Studies,
ROK Naval War College/Ph.D. student, Dept. of defense Management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본 연구는 소련의 고르시코프 체제와 중국 유화칭 체제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 과정을 비교하고, 한국 해군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소련은 미국의 해양지배를 견제하기 위해 대양해군과 균형함대 건설을 추진하였고, 중국은 경제발전과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근해 방어전략과 원해작전 능력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켰다. 두 사례는 해군력 발전이 국가전략 목표, 작전개념, 전력구조가 연계될 때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국가전략과 연계된 해양전략 목표를 정립하고, 해양통제·해상교통로 보호·통합전력 운용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전력건설 방향을 발전시켜야 한다.

This study compares the maritime strategies and naval force development of the Soviet Union under Admiral Sergey G. Gorshkov and China under Admiral Liu Huaqing and draws implications for the ROK Navy.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oviet Union pursued a blue-water navy and balanced fleet to counter U.S. maritime dominance, while China developed an offshore defense strategy and gradually expanded its far-seas operational capabilities to support its economic development and maritime rights. These cases suggest that naval force development becomes meaningful when national strategic objectives, operational concepts, and force structures are organically linked. Therefore, the ROK Navy should establish maritime strategic objectives aligned with national strategy and pursue sustainable force development for sea control, protection of sea lines of communication, and integrated force employment.

Keywords

Maritime Strategy(해양전략),
Naval Force Development(해군력 건설),
Gorshkov(고르시코프), Liu Huaqing(유화칭),
ROK Navy(한국 해군)

1. 서론

해양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뒷받침하는 전략의 공간이며, 해군력은 해상교통로 보호, 해양권익 수호, 군사력 투사,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전략의 핵심 수단이다. 특히 현대 해군력은 단순한 연안 방어 전력을 넘어, 평시에는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위기 시 전략적 선택지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해군력의 건설은 개별 함정이나 무기체계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양이익을 보호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 것인가와 관련된 전략적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1], p. 101, [2], p. 472).

소련과 중국의 해군력 발전과정은 이러한 관점의 대표적 사례이다. 소련은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원거리 해역에서 국가의 정치·군사적 의지를 뒷받침할 해군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고르시코프 제독을 중심으로 대양해군 건설을 추진하였다. 반면에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 대만 문제,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의 해양권익, 해상교통로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유화칭 제독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안 방어를 넘어 근해 방어 중심의 해양전략을 발전시켰다. 두 사례는 모두 대륙 중심 국가가 안보환경과 국가전략의

변화 속에서 해군력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한 사례라는 점에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3], p. 377, [4], pp. 10-11).

소련과 중국의 해군력 발전은 단순한 전력증강 사례로만 봐서는 안 된다. 양국의 해군력 증강은 국가가 추구한 전략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개념,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력수단이 결합된 결과였다. 고르시코프의 소련 해군은 미국의 해양지배를 견제하고 초강대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양해군을 지향하였으며, 유화칭의 중국 해군은 주변 해역에서 주권과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원해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양국 사례는 해군력 건설이 국가전략, 해양전략, 전력구조가 연계될 때 실질적 의미를 지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4], pp. 10-11).

이에 본 연구는 소련 고르시코프 체제와 중국 유화칭 체제에서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과정을 비교·분석하여 한국 해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은 전략의 3요소인 목표, 방법, 수단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양국의 전략목표와 작전개념, 전력구조가 해군력 발전과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해군이 단순한 플랫폼 확보를 넘어, 국가전략과 연계된 해양전략 목표와 단계적 전력건설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는 함의를 제시하였다([1], p. 101). 분석의 틀은 Table 1과 같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각각 고르시코프와 유화칭의 해양전략과 시대적 배경, 소련과 중국의 해군력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양국 사례를 비교하여 한국 해군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2. 고르시코프의 해양전략과 소련 해군력의 발전

2.1 고르시코프 해양전략 등장 of the 시대적 배경

세르게이 고르시코프(Sergey G. Gorshkov, 1910~1988)는 냉전기 소련 해군의 발전 방향을 결정한 핵심 인물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초기의 군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군을 단순한 연안 방어 전력이지 아닌 국가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구현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1956년 소련 해군 총사령관에 취임한 이후 장기간 해군력 건설을 주도하면서 대륙군 중심의 소련 군사전략 속에서 상대적으로 부차적 위치에 있던 해군의 위상을 국가전략의 핵심 요소로 끌어올렸다([6], p. 306). 고르시코프의 해양전략은 미·소 냉전이라는 전략환경 속에서 발전하였다. 그리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대양 진출과 균형함대 건설의 필요성이 부상되었다. 당시 소련은 막강한 지상군과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해양에서는 미국 해군의 항모전단과 해상봉쇄 능력에 비해 제한적인 영향력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원거리 해역에서 국가의 정치·군사적 의지를 뒷받침할 해군력이 부족할 경우 국가전략 수행에 중대한 제약이 됨을 일깨워 주었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극적 연안 방어 개념을 넘어 대양에서 활동이 가능한 해군력의 건설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 주었다([7], pp. 85-87). 고르시코프는 해군력을 국가 해양력의 핵심 구성요소로 보았다. 그는 해군이 전시에는 군사력 투사와 핵억제제의 수단으로, 평시에는 국가의 외교정책과 대외 영향력 행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즉 해군력은 전쟁 수행만을 위한 군사력일 뿐 아니라, 국가의 지위와 영향력, 억제력, 외교정책을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전략적 도구로 보았던 것이다([2], p. 472).

2.2 고르시코프의 해양전략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르시코프의 해양전략은 소련이 대륙에서 대양으로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그의 전략은 단순히 함정 척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해군의 해양지배를 견

Table 1. Analytical framework of the study

Category	Analytical Focus
Historical Context	The Security environment in which Gorshkov and Liu Huaqing formulated their maritime strategies
Objectives (Ends)	Strategic objectives that the state sought to achieve through naval power
Approaches (Ways)	Maritime strategies and operational concepts for achieving the objectives
Means	Force structure and naval force development directions for implementing the strategy
Implications	Directions for the ROK Navy's maritime strategy and force development

제하고 소련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구상이었다. 이를 전략의 3요소인 목표, 방법, 수단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각 요소가 해군력 발전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1], p. 101).

Table 2. Gorshkov's maritime strategy and the development of Soviet Naval power

Category	Analytical Focus
Catalyst	- The 1962 Cuban Missile Crisis exposed the Soviet Navy's limited ability to support the state's political and military objectives in distant waters. - The crisis highlighted the need to move beyond coastal defense and expand Soviet strategic influence across the world's oceans.
Ends	- Build a global blue-water navy capable of operating across the world's oceans and secure superpower status comparable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 Project Soviet political and diplomatic influence worldwide.
Ways	- Limit U.S. naval dominance through active defense and sea denial. - Secure strategic room for maneuver by challenging U.S. carrier strike groups, sea lines of communication, and forward bases from extended ranges.
Means	- Develop a balanced fleet integrating submarines, surface combatants, naval aviation, naval bases, and support forces. - Establish a distinct Soviet force structure centered on SSBNs, SSGNs, SSNs, and long-range naval aviation rather than simply replicating the U.S. carrier-centered model.
Naval Force Development	- Expand major surface combatants, including aircraft-carrying cruisers, nuclear-powered submarines, and strategic missile submarines during the Brezhnev era. - Transform the Soviet Navy from a coastal-defense force into a blue-water navy capable of reinforcing nuclear deterrence, supporting Third World partners, and challenging U.S. sea control.
Limitations	- The construction of a large-scale blue-water navy imposed substantial financial and logistical burdens. - Despite its strategic achievements, the Soviet naval buildup revealed long-term constraints related to economic capacity and regime sustainability.

고르시코프 해양전략의 목표는 전 세계의 대양에서 작전 가능한 대양해군을 건설함으로써 소련의 초강대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 있었다. 그는 대륙 국가인 소련이 미국과 대등한 전략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서는 지상군과 핵전력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해양에서의 영향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해군은 단순한 본토 방어 전력이 아닌 미국의 해양지배를 견제하고 소련의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투사하는 수단으로 발전해야만 했다([3], p. 377).

방법 측면에서는 기존의 소극적 연안 방어를 넘어 적의 위협을 원거리에서 차단하는 적극적 방어를 강조했다. 이는 자국 연안에서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적 해군의 접근을 먼 해역에서 견제하고 필요할 경우 대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미국처럼 전 세계 해양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잠수함·미사일·해상항공전력을 활용해 미 해군의 항공모함전단과 해상교통로를 위협하여 바다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양거부 전략이라 하겠다([8], pp. 130-135).

수단 측면에서 균형함대 개념을 통해 대양해군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균형함대란 특정 전력에 편중되지 않고 잠수함, 수상함, 해군항공, 상륙전력, 기지, 지원함정이 조화롭게 발전한 함대를 의미한다. 고르시코프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을 정면으로 대응하기보다 핵추진전략잠수함, 순항미사일 탑재 잠수함, 장거리 해상항공전력, 대함미사일로 대응하도록 전력을 균형 있게 집중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전력 구조는 소련의 전략환경과 군사 기술적 강점을 반영한 독자적 해군력 건설 방식이라 하겠다([2], p. 472).

2.3 소련 해군력 발전의 전략적 의미

고르시코프 체제하에서 소련 해군은 연안 방어 중심에서 대양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전하였다. 브레즈네프 집권 시기(1964~1982)에 항공순양함을 포함한 대형 수상함, 핵추진잠수함, 전략잠수함 전력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미국 본토, 해상교통로, 동맹국 지원체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였다. 특히 전략잠수함 전력은 소련의 핵 억제력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순항미사일 잠수함과 장거리 해상항공전력은 미국 항모전단을 견제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8], pp. 130-135). 이러한 변화는 소련 해군이 단순한 방어 전력에서 벗어나 국가전략 수행의 핵심 수단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고르시코프의 해양전략은 소련이 미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해양을 전략적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

였고 해군력을 통해 군사적 억제, 외교적 영향력 확대, 제3세계 지원, 해양거부 능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전략에 따른 대규모 대양해군 건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소련 체제의 구조적 한계와 결합되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제약을 드러냈다([7], pp. 85-87).

결과적으로 고르시코프의 해양전략은 소련 해군을 연안 방어 중심 전력에서 글로벌 대양해군으로 전환하게 하는 이론적·실천적 기반이 되었다. 그의 전략은 국가전략 목표와 해양전략, 전력건설이 상호 연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해군력 발전이 단순한 플랫폼 확충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대외 영향력을 구현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동시에 소련의 사례는 해군력 증강이 국가 경제와 기술 역량, 군수지원 능력을 초과할 경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유화칭의 해양전략과 중국 해군력의 발전

3.1 유화칭 해양전략 등장 시대의 배경

유화칭(劉華清, Liu Huaqing, 1916~2011)은 현대 중국 해군 발전 방향을 제시한 핵심 인물이다.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서 군사·정치적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1982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사령원으로 부임한 이후 해군 현대화를 주도했다. 유화칭은 기존의 연안 방어 중심의 해군만으로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중국 해군을 보다 확장된 작전 범위와 현대적 전력구조를 갖춘 해군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4], pp. 10-11). 유화칭이 활동한 시기는 중국의 국가전략이 크게 변화하던 시기였다. 건국 초기 중국 해군은 모택동의 인민전쟁 사상에 기초하여 연안에서 적의 접근을 저지하는 방어적 역할만 수행했다. 그러나 냉전 후반기 중소 분쟁과 더불어 베트남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소련이 베트남의 캄란만 기지를 활용하면서 중국은 해상으로부터의 위협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해양권익 문제도 중국 해군력 발전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9], p. 125). 개혁개방 이후에는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해양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었다. 중국의 대외무역과 에너지 수입이 해상교통로에 의존하게 되면서 해군

은 단순한 연안 방어 전력이 아니라 국가경제와 해양권익을 보호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화칭은 기존의 소극적인 연안 방어 개념을 넘어, 중국 주변 해역에서 외부 세력의 접근을 제한하고 해양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근해 방어 전략을 제시하였다([4], pp. 10-11).

3.2 유화칭의 해양전략

유화칭의 해양전략은 중국이 대륙 중심의 방어전략에서 벗어나 해양권익 보호와 원해 진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그는 중국이 단기간에 미국이나 소련과 같은 대양해군을 건설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경제력과 기술력, 안보환경을 고려한 단계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즉각적인 대양해군을 건설하는 것보다 근해 방어 능력을 우선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전략의 3요소인 목표, 방법, 수단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각 요소가 해군력 발전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정리하면 Table 3와 같다([4], pp. 10-11).

유화칭 해양전략의 목표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가통일, 해양권익 보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해양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었다. 소련의 고르시코프가 미국과의 글로벌 패권경쟁 속에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였다면, 유화칭은 중국 주변 해역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대만 문제, 남·동중국해에서의 해양권익, 해상교통로 보호는 중국 해군력 발전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10], p. 274).

방법 측면에서는 기존의 연안 방어를 넘어 근해 방어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국 연안에서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변 해역에서 외부 세력의 접근과 개입을 제한하고 중국의 행동 자유를 확대하는 전략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통상적으로 제1도련선 내 작전능력 확보, 제2도련선 방향으로의 작전 범위 확대, 장기적인 원해작전 역량 발전이라는 단계적 구상으로 설명된다. 즉 유화칭의 근해 방어는 단순히 방어 공간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해군이 장기적으로 원해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5].

수단 측면에서는 중국의 제한된 경제력과 기술 수준

Table 3. Liu Huaqing's maritime strategy and the development of Chinese Naval power

Category	Analytical Focus
Catalyst	- Maritime security concerns emerged from the intensification of the Sino-Soviet dispute, the conflict with Vietnam, the Taiwan issue, and disputes over maritime rights and interests in the South China Sea. -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up, the protection of sea lines of communication and maritime resources became directly linked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ncreasing the need for an independent naval buildup.
Ends	- Establish a stable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that could support economic development, national reunification, and the protection of maritime rights and interests. - Protect sovereignty and core interests in surrounding waters in the short term, while developing naval capabilities to safeguard national interests in the far seas over the long term.
Ways	- Move beyond traditional coastal defense and develop an offshore defense strategy. - Secure operational capabilities within the First Island Chain and gradually expand the operational scope toward the Second Island Chain and the far seas.
Means	- In the early stage, employ relatively cost-effective forces such as submarines, missiles, mines, and small surface combatants to restrict the access of external powers. - Later, gradually expand forces required for far-seas operations, including aircraft carriers, large surface combatants, nuclear-powered submarines, naval aviation, and logistics support forces.
Naval Force Development	- Move away from a force structure centered on outdated small vessels and develop a modern navy equipped with large surface combatants, submarines, anti-ship missiles, aircraft carriers, and far-seas logistics support forces. - Expand the operational scope from coastal waters to the near seas, and gradually further to the Western Pacific and the Indian Ocean.
Limitations	- The expansion of Chinese naval activities has contributed to concerns among neighboring states and the intensification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 To conduct both offshore defense and far-seas operations, China must continue to strengthen not only naval capabilities but also logistics support, command and control, and long-range operational experience.

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전력건설을 추구하였다. 초기에는 잠수함, 미사일, 기뢰, 소형 수상함 등 상대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전력을 중심으로 건설하여 외

부 세력의 접근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이후에는 국력 신장에 따라 항공모함, 대형 수상함, 핵추진잠수함, 해상항공전력, 군수지원 전력 등 원해작전에 필요한 전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비대칭 전력과 대칭 전력을 선택적으로 배합하여 중국 해군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었다([4], pp. 10-11).

3.3 중국 해군력 발전과 전략적 의미

유화칭 체제 이후 중국 해군은 연안 방어 중심의 구형 전력에서 벗어나 근해 방어와 원해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현대적인 해군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구형의 소형 함정을 도태시키고 대함미사일을 탑재한 수상함과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후에는 대형 구축함, 핵추진잠수함, 항공모함, 해상항공전력, 원해 군수지원 전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해군이 단순히 함정 척수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주변 해역에서의 접근 거부와 원해에서의 지속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함께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8], pp. 130-135).

유화칭의 해양전략은 중국 해군 발전의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는 중국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우선 근해 방어 능력을 확보하고, 이후 국력 신장에 따라 작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발전 경로를 제시하였다. 오늘날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을 넘어 서태평양과 인도양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모습은 유화칭이 제시한 전략적 방향성과 연속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중국 해군력 발전은 유화칭 개인의 구상만으로 설명되기보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기술 발전, 미-중 전략경쟁, 해양권의 확대가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11], pp. 139-145).

중국 해군의 발전은 역내 해양안보 환경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관점에서 해군력 증강은 주권과 해양권을 보호하고 외부 세력의 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변국의 관점에서는 중국의 해군력 확대가 해양질서의 변화를 시도하고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유화칭의 해양전략은 중국 해군 현대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성과를 갖지만, 동시에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의 불확실성과 역내 군

비경쟁을 확대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4. 고르시코프와 유화칭의 해양전략 비교 및 한국 해군에의 시사점

4.1 고르시코프와 유화칭 해양전략 비교

고르시코프와 유화칭의 해양전략은 서로 다른 시대와 전략환경 속에서 형성되었지만, 대륙 중심 국가가 해양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해군력을 국가전략 수행의 핵심 수단으로 발전시켰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소련은 미국과의 글로벌 패권경쟁 속에서 해양지배를 견제할 수 있는 대양해군 건설을 추진하였다. 반면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과 해양권의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안 방어에서 근해 방어로 작전 범위를 확대하였다([3], p. 377, [4], pp. 10-11). Table 4는 고르시코프와 유화칭의 해양전략을 비교한 것이다.

양국의 차이는 전략 목표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고르시코프는 미국과의 초강대국 경쟁을 전제로 전 세계 대양에서 지속해서 작전할 수 있는 해군력을 지향하였다. 소련 해군은 단순한 본토 방어 전력을

넘어, 핵억제력을 보완하고 미국 항모전단과 해상교통로를 견제하며 제3세계에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즉 고르시코프의 전략은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해양지배에 도전하는 대양 진출형 전략이었다고 하겠다[7]. 반면, 유화칭은 중국이 단기간에 미국이나 소련과 같은 대양해군을 건설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였다. 그는 우선 중국 주변 해역에서 주권과 핵심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근해 방어 능력을 확보하고, 이후 국력 신장에 따라 원해로 작전 범위를 확대해 가는 단계적 발전을 추구하였다. 중국은 초기에 잠수함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외부세력의 접근을 제한하고 이후 항공모함과 대형 수상함, 원해 군수지원 전력을 확충하였다. 즉 유화칭의 전략은 제한된 역량을 집중하여 점진적으로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는 단계적 발전형 전략이었다고 하겠다([4], pp. 10-11, [5]).

두 사례는 해군력 발전이 개별 플랫폼의 획득이나 함정 척수의 확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소련은 글로벌 패권경쟁이라는 목표에 따라 균형함대를 건설하였고, 중국은 주변 해역의 핵심이익 보호와 장기적 원해 진출이라는 목표에 따라 비대칭 전력과 대칭 전력을 단계적으로 배합하였다. 따라

Table 4. Comparison of Gorshkov's and Liu Huaqing's maritime strategies

Category	Soviet Union under Gorshkov	China under Liu Huaqing
Strategic Environment	• U.S.-Soviet global rivalry during the Cold War· U.S. naval dominance at sea	• Economic development after reform and opening-up· Taiwan issue, expansion of maritime rights and interests, and access by external powers
Strategic Turning Point	• Recognition of the Soviet Navy's limitations in distant waters after the 1962 Cuban Missile Crisis	• Sino-Soviet dispute, conflict with Vietnam, Taiwan issue, and growing need to protect sea lines of communication
Ends	• Secure superpower statu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 global blue-water navy· Project Soviet political and diplomatic influence worldwide	• Establish a stable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national reunification, and protection of maritime rights and interests· Develop naval capabilities to protect national interests in the far seas over the long term
Ways	• Limit U.S. naval dominance through active defense and sea denial· Challenge U.S. carrier forces and sea lines of communication from extended ranges	• Restrict external powers' access to surrounding waters based on offshore defense· Gradually expand the operational scope from the First Island Chain toward the Second Island Chain and the far seas
Means	• Build a balanced fleet integrating submarines, surface combatants, naval aviation, bases, and support forces	• Initially emphasize asymmetric forces such as submarines and missiles· Gradually expand aircraft carriers, large surface combatants, and far-seas logistics support forces
Development Pattern	• Build a large-scale blue-water navy for global competition within a relatively short period	• Gradually develop from offshore defense to far-seas operations in line with national power growth
Limitations and Challenges	• Long-term sustainability constrained by large-scale military expenditure and logistics burden	• Need to accumulate logistics support, command and control, and long-range operational experience for expanded far-seas operations· Growing concerns among neighboring states due to naval expansion

서 해군력 건설은 국가전략 목표, 해양전략, 작전개념, 전력구조가 상호 연계될 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겠다[12].

4.2 한국 해군에의 시사점

소련과 중국의 해군력 발전방식을 한국 해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양국은 국력, 지정학적 환경, 안보목표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례는 해군력 건설이 국가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제한된 자원 속에서 우선순위와 발전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해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주변국 해군력 증강, 해상교통로 보호, 역내 해양안보 협력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독자적인 발전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13].

첫째, 국가전략과 연계된 명확한 해양전략 목표를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전력건설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련은 미국의 해양지배 견제를, 중국은 주변 해역에서의 핵심 이익 보호와 원해 진출 기반 확보를 해군력 건설목표로 설정하였다. 한국 해군 역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통제와 전구작전 수행을 기본으로 하되, 이와 함께 해상교통로 보호와 역내 해양안보 기여를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기준으로 전력건설의 우선순위를 구체화해야 플랫폼 획득이 목적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12].

한국 해군의 발전 방향은 단순히 연안 방어와 대양 진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면 안 된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확보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해상교통로의 주요 해양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근해 해양통제, 비대칭 위협 대응, 원해작전 지원능력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접근이 요구된다[13].

둘째,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비할 수 있는 질적 우위 중심의 전력구조를 발전해야 한다. 소련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잠수함, 장거리 해상항공전력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였다. 중국도 초기에는 비대칭 전력을 중시하였으며, 이후 대형 수상함과 항공모함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전력

구조로 발전하였다. 한국 해군 역시 북한의 잠수함 위협, 핵·미사일 위협, 무인체계와 특수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탐지·지휘통제·정밀타격 능력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13]. 이와 함께 향후 예상되는 병력자원과 국방 재원의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플랫폼의 양적 확대보다 자동화, 네트워크화, 무인화를 통한 질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수상함, 잠수함, 해상항공, 무인체계를 개별적으로 확대하여 확보하기보다 제한된 인력으로 넓은 해역을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유·무인 복합체계와 인력 절감형 운용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전력의 양적 확대보다 전력 운용의 효율성과 생존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14].

셋째, 특정 함정이나 무기체계의 획득을 중심으로 전력건설을 추진하기보다 다양한 전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통합전력 운용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고르시코프는 잠수함, 수상함, 해군항공, 기지, 지원함정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는 균형함대 개념을 강조하였다. 유화칭 역시 잠수함과 미사일 중심의 접근 거부 능력에 항공모함, 대형 수상함, 군수지원 전력이 결합하여 원해작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계적 발전을 강조하였다. 한국 해군도 개별 플랫폼의 성능뿐 아니라 센서, 지휘통제, 정밀타격, 군수지원, 기지 방호를 하나의 작전체계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 해양전장에서는 다수의 유·무인 전력이 분산된 상태에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시점에 화력을 집중하여 일부 전력의 손실에도 임무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해군의 전력건설은 플랫폼 획득과 함께 작전개념, 지휘통제체계, 교육훈련, 군수지원체계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 전력의 생존성과 작전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건이다.

이상의 시사점은 한국 해군이 소련이나 중국의 해군력 건설 방식을 그대로 모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두 사례는 각 국가가 처한 전략환경과 국가역량에 따라 해양전략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작전개념과 전력구조를 일관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해군도 한반도 안보환경,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 해상교통로 보호 필요성, 인력과 재원의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군력 발전 방향을 정립해야 하겠다[12].

5. 결론

본 연구는 소련의 고르시코프와 중국 유화칭의 해양전략 및 각국의 해군력 발전과정을 전략의 3요소인 목표, 방법, 수단을 분석의 틀로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해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소련과 중국은 모두 전통적으로 대륙중심의 군사전략을 유지해 왔으나,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국가전략의 요구에 따라 해군력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해양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고르시코프는 미·소 냉전이라는 글로벌 패권경쟁 속에서 미국의 해양지배를 견제하고 초강대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소련의 대양해군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적극적 방어와 해양거부를 전략적 방법으로 채택하고, 잠수함·수상함·해군항공·기지 및 지원전력을 결합한 균형함대를 발전시켰다. 유화칭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과 국가통일, 해양권의 보호라는 요구 속에서 연안 방어를 넘어 근해 방어 전략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제한된 중국의 역량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잠수함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이후 국력 신장을 고려하여 항공모함, 대형 수상함, 원해지원 전력 등과 같은 대칭 전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였다.

두 사례는 해군력 건설이 단순한 함정 척수 확대나 개별 무기체계의 도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과 해군력은 국가가 추구하는 전략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개념, 그리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전력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련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균형함대를 건설하였고, 중국은 국가역량의 변화에 맞추어 작전 범위와 전력구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해군력 발전이 각 국가의 전략환경과 국가역량, 안보목표를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 해군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독자적인 해양전력과 전력건설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통제와 전구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고 해상교통로와 주요 해양이익을 보호를 통해 국가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력을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전략과 연계된 해

양전략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핵심 위협과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단계적 전력건설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플랫폼 확대보다 자동화·네트워크화·무인화를 통한 질적 우위를 확보하고, 다양한 전력을 하나의 작전체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한국 해군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단순히 규모가 큰 해군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전략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군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소련과 중국의 사례는 명확한 전략목표와 일관된 작전개념, 이를 뒷받침하는 전력구조가 결합하였을 때 해군력 발전이 국가 전략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1] 박창희, 군사전략론, 플래닛미디어, 2013.
- [2] Sergey G. Gorshkov, 임인수 역, 국가의 해양력, 책세상, 1999.
- [3] Gwang-ho Jung, 'The Soviet Maritime Strategy in the Cold War and The U.S. Response,' *Military History*, NO. 89, 2013, pp. 363-387.
- [4] Nam-su Kim,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Naval Strategy to Become a Maritime Power: Focusing on Analyzing the "Goals, Methods, and Means" of Strategy,' *Maritime Security*, VOL. 2, NO. 1, 2021, pp. 1-42.
- [5] Yeoung-Hyeong Lee, 'Geopolitical Interpretation of China's Island Chain Strategy,' *Korea and International Society*, VOL. 2, NO. 1, 2018, pp. 137-162.
- [6]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 [7] Dong-eun Kim, 'A Change of Maritime Strategy in the Maritime Dissatisfied Great Powers by Geographical Factors: Focusing on Germany in the World War I and Soviet Union in the Cold War,' *Military History*, NO. 112, 2019, pp. 83-128.
- [8] 김정현, 대륙국가의 해군력 증강, 한국학술정보, 2005.
- [9] Jeongho Choi, 'The Impact of the Sino-Vietnamese War in 1979: Focusing on the Strengthening of China's Naval Power,' *Chinese Studies*, VOL. 102, 2025, pp. 123-148.
- [10] Jaejun Lee, 'China's Naval Power Buildup and Security Dilemma,'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0, NO. 3, 2021, pp. 257-284.
- [11] Duk-ki Kim, 'Naval Arms Race in Northeast Asia,' *Strategy 21*, NO. 43, 2018, pp. 125-174.
- [12] Kil Joo Ban, 'Synchronization of Strategy and Weapons: Tracing Mechanism of Shift from Light Carrier to Korea-Tailored Carrier,' *National Strategy*, VOL. 29, NO. 3, 2023, pp. 157-180.
- [13] Ho-Sub Jung, 'Maritim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Year 1998 and Year 2018,' *Strategy 21*, NO. 43, 2018, pp. 57-88.
- [14] Gwang-ho Jung & Dong-eun Kim, 'A Strategic

Implications of Changes in U.S. Maritime Strategy for the
R.O.K Navy: Focusing on the Change to Maritime Maneuver

Warfare,' Korean Journal of Military Studies, VOL. 78, NO. 3,
2022, pp. 57-90.